

“주인으로 사는 삶 한 순간도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도법 스님 저음 다산초당 펴냄 1만3천원

너도 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갈망과 절규가 우리를 더욱 더 큰 아픔과 암흑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한마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저자인 도법 스님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쌍용차 사대,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사회의 첨예한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서 소통과 화합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스님은 자기 자신의 삶부터 직시해서 스스로 명약이 되라고 일갈한다. 교회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던 절하겠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가서 읍소하러면 읍소하겠다는 심정으로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바로 도법 스님이 갈등과 분열로 병들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짧은 당신에게 직설어법으로 건네는 삶의 지침서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디, 그 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직면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 자기 본래 모습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그곳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스님은 “주인으로 사는 삶을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수처자주 임치개진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있는 그곳이 곧 진리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또한 도법 스님은 이 책에서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에어컨 처방과 비슷해 순간 편할 수 있으나 결국 삶을 왜곡해 바라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중독되는 삶을 낳아 고통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는 연습을 권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도법 스님은 “온통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에는 전혀 무관심하기에 삶의 문제가 닦혔을 때, 피하거나 이기기 위해 발버둥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언제나 새 각도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오랜 신념조차도 부정하는 용기”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가 가장 그릇된 생각으로 '1등'과 '부자'를 꼽는다. 모두 1등이 되고 부자가 되면 공간적으로 인류 문명이 유지될 수 없는데도 우리는 '1등'과 '부자'



**도법 스님이 건네는 성찰의 메시지
현장서 소통과 화합 해답 찾으려 노력
연기법 이해하면 갈등 회복 가능**

만을 꿈꾸며 상대를 욕하고, 일상서 스트레스 받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남을 짓밟고 있다.

이로 인해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스님은 불교의 팔정도과 연기법에서 찾는다. “정신통일의 세계도 가장 최고의 경지까지 해봤고, 왕자로서 궁궐에서 잔뜩 먹고 놀아도 본 부처님은 양 극단을 모두 경험한 분입니다. 그런 그가 제시한 팔정도의 요지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돼

존재한다는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도법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붓다의 행보를 자주 거론한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 “가장 왕성한 도시, 최첨단의 사상과 문명이 화려하게 거리에 넘쳐나는 강대한 왕국의 수도서 설법을 펼치고 개인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와 완성을 추구했다.”며 “붓다의 출가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완성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완성, 사회적 고통의 극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도법 스님은 4부 즉문즉설을 통해 일상서 우리가 느끼고 답답해하던 궁핍증에 답한다. 즉문에 대한 도법 스님의 즉설은 어느 한쪽을 편지지 않는다. 대신 이후 박탈감에 빠진 청년에게 “상대와 싸워서 상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하라”고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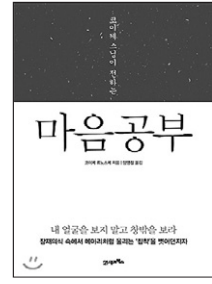
이 책은 스님이 현장서 얻은 깨달음과 쉽게 풀어놓은 팔정도, 연기론 등의 불교이론, 붓다의 예화 그리고 각 세대, 계층의 고민을 담은 즉문즉설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게 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 책은 완성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순간 완성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배움과 실천의 메시지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실패의 원인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

코이케 스님이 전하는 마음공부

코이케 류노스케 저음 | 양영철 번역 21세기북스 펴냄 | 1만3천원



양한 고민들이 짙게 들어간 고민 상자이다.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사소한 고민이든,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무거운 고민이든, 사람들의 머릿속은 갖가지 고민으로 폭발할 지경이다.

이런 현상은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등의 저자이자 명상법, 마음 수련 강자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웹사이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코이케 스님이 운영하는 '가출공간'이란 웹사이트의 한쪽 구석에는 '쓰쿠요미지 서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스님은 지금까지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많은 사람들과 방대한 문답을 주고받아 왔다.

여기에 게재된 수많은 문답 중에서 100개의 고민을 선별하여 도마 위에 올린 책이 바로 이번에 발간된 <마음공부>다. 스님이 적적 내놓는 해답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특별하고 어려운 고민이라 해도 실제로는 비슷한 문제를 그저 형태만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한 스님이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서 '뉘야, 내 고민 역시 고민 선반에 전월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 하나에 불과했잖아'라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다이어트 중인데 굶것질을 멈출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불행은 끝맛일까요” “대출 보증 부타를 거절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주 차이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어요” “말이 너무 많고 일방적인 상사 때문에 피곤해요” “전 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도착 할까요” 등등. 이 책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해결책을 알고 싶어하는 고민들이 가득하다.

사소하지만 풀어내기 힘든 일상의 사소한 습관부터 골치 아픈 인간관

계, 직장이나 생계와 관련되어 움짱 달짝할 수 없는 일, 소중한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 '지금'에 집중하기 위한 삶의 방식, 그리고 읽다 보면 위음이 나오는 재미있고 소박한 질문까지, 이 책은 독자들의 질문을 총 여섯 개 파트로 나누어 차근차근 답하고 있다.

코이케 스님에게 상담을 받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따끔하게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 없이 오직 '지금'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각각의 고민이 아무리 특별하고 복잡한 책을 해도 어차피 욕망, 분노, 방황이라는 변뇌 에너지의 조합일 뿐이다.

결국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프로그램에 조종을 받고 농락을 당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저자 웹사이트서 고민상담
100개 고민 선별해 해답 제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강조**

항상 자극을 바라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극조차 기분 좋게 받아들여 나쁜 버릇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데, 이런 버릇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른다.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음의 버릇'을 간파해서 없앨 수 있다면, 즉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당연히 어떤 고민이든 자기 자유자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종하는 정체를 알아내어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조종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벗어던지라고 조언하는 스님은 이 책에서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날린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인 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즉 물건이나 돈은 물론 생각에서조차도 집착은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한 고민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잠재의식 속에서 매리터처럼 울리는 집착을 벗어던져 고민 상자를 깨끗이 비워보자. 탈출구가 보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허운대사 법 이은 선화상인 참선 법문집

**허공을 타파하여 마음을 밝히다
선화 상인 강설 | 정원규 편역 | 불광 펴냄 | 9천원**



임제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 유문종 등 중국 선종 5가의 법맥을 한 몸에 이은 허운(虛雲) 대사(1840~1959)의 법을 이어받은, 중국 위양종 제9대 조사 선화 상인은 근·현대 중국불교의 뛰어난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불성(佛性)의 자각을 통한 명심견성(明心見性)을 강조한 백장회해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위산영우 선사로부터 시작된 중국 위양종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참선법문집이다.

삐뚤 마의 유혹에서 모두 벗어나 마침내 오온이 모두 공하고 육신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면, 비로소 성불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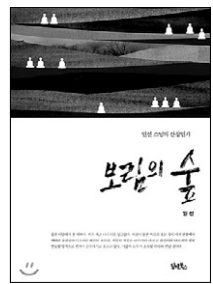
이 책은 모두 8부 8로 되어 있다. 먼저 참선 수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무엇이 참된 참선수행이며, 어떤 방법으로 참선해야 하는

지, 참선으로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각각 편을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행 중 만나는 경계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된 경계와 거짓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참선 수행자에게 도움이 될 선 사들의 이야기도 따로 한 부가 있고, 선화상인과 제자들이 선 수행에 대해 나눈 문답이 따로 정리되어 있어서 한국의 참선 수행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선화 상인이 남긴 선계(禪偈)가 실려 있어서 상인의 수행 경지를 짐작케 한다. 이 책에서 상인은 참선 수행의 요결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수행에 매진할 것을 경책하고 있다.

근세 중국의 큰 선지식인 허운 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선화 상인의 선에 대한 가르침의 요지를 이 한 권에서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살아 있는 중국 선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선화 상인의 강설로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2009),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2012)이 소개되었고, 이 책은 세 번째로 출간된 참선 법문집이다. 김주일 기자

“탐진치 삼독 불 꺼야 참마음의 등불 켜져”

**보림의 숲
일선 저음 | 담엔 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불교TV에서 '수행의 올바른 길, 수심결'을 강의중인 일선 스님의 수행 에세이다. 끊임없이 괴로움으로 저자인 일선 스님은 전남 고흥 거금도 금천선원에서 간화선 실참을 바탕으로 참선 및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일찍이 <소리> (행복한 간화선) 등으로 생활속 수행 실천을 강조한 스님은 이번 책에서는 산장에서 느끼는 자연 정취와 일상적 사색에서 간화선 수행을 엮어 책으로 묶었다.

책 제목은 '보림'인데 그 속뜻은 이렇다. 사람마다 차별 없이 갖고 있는 보배는 비록 모양과 이름이 없지만 눈앞에 나타나면 온갖 이름과 모양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믿고 깨달으면 일체 밖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나의 안심임체가 되어 서로 다르다고 싸우거나 차별하지 않는

다. 이것을 보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림의 숲'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가 거처하는 구산선문 보림사의 숲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여러 이웃들을 숲처럼 평화롭게 감싸 주고 길러주 모두가 행복한 공덕림을 말하기도 한다.

이 책은 신문 칼럼으로 실은 저자의 글과 거금도 섬에서 생활하며 느낀 잔잔한 소회, 구산선문 보림사 주지를 지내면서 바라본 사계절의 풍광과 일상속 마음 다스림 등을 소개해준다. 책은 그날 그날의 일기처럼 내용이 잔잔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풍경 한점, 비건 다음날의 깨끗한 풍경 한 점이 나를 일깨우는 '수심(修心)'이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한 구절 소개하면 이렇다. “바윗돌은 끝없이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지만 사람은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져야 진짜 불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탐내고 어리석으며 성내는 마음 때문에 불이 꺼져서 어둡게 살고 있다. 지나간 불물을 참회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듯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김주일 기자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다. 고급반(실전교육)
격곡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특징: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 개강일시
 - 가. 개강일: 2013년 3월 13일(수요일)
 - 나. 수업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수강료: 학기당 30만원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 강주: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 접수기간: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원목 법상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천신의 차크라 열어서드리고 승통 뚫어서드려
수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철해샤 송고쇼 마음고쇼로
쳐걸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쫓속 빠져나가는
원전웰빙 심신건강 세방, 진짜 힐링, 만병통치슈

숨차고, 킬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걸을 잘못 하는 것

◎ 장소: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